

## 은평뉴타운 제2지구 현장설명회 자료 및 사진자료

중앙문화재연구원(원장 윤세영)에서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산134-1번지 일대 은평뉴타운 제2지구 C공구 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2006년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은평뉴타운 제2지구 C공구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유구가 확인된 범위는 88,881㎡이며, 이중 녹지 구간을 제외한 33,457㎡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실묘 1기, 조선시대 분묘 3,400여기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은 토도류 231점, 청동류 672점, 철기류 939, 옥석류 250점, 와전류 41점, 기타 40점 등 2,140점이며 모두 조선시대에 속한다. 인골은 626개체에 대한 기초정리가 완료되었다.

본 유적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좁은 범위에 중복되어 밀집된 양상으로 분묘가 조영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이 지역이 무덤 입지로서 적합한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다. 분묘는 특히, III-2지구서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데, 10m×10m 범위에 최대 36기까지 중복되어 있으며, 평균 25기에 이른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발굴 조사된 지역의 북쪽의 녹지지역에서도 이와 동일하거나 보다 더 높은 밀집이 예상되며, 지표에 산재된 석물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중복관계에서 후대 행위자가 선대 무덤을 인식했는지의 여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으며, 회격묘(회곽묘 포함)가 중복의 마지막 단계로 선대 토광묘 위에 조영되어 있다.

분묘는 매장주체부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토광묘와 회격묘(회곽묘 포함)로 구분되며, 목관(곽)의 유무에 의해 순수·목관·목곽 토광묘로 세분되는데 모든 방식이 확인된다. 규모에서도 대략 너비 80cm를 기준으로 목관과 목곽의 구조적인 차이가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분묘는 중복관계에 의해 목곽→목관, 토광→회격으로 변화되며, 규모의 소형화와 부장품에서의 박장화로의 변천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식의 구분은 피장자의 사회적 신분과 흥례 절차의 변화와 연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덤 외부를 장식하는 석물은 묘갈, 상석, 고석, 향로석, 문인석, 동자석, 비좌, 계체석 등이 확인되나 흐트러져 있어 특정 분묘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유물은 부장품으로 명기·장신구·문방구·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명기는 백자류·청동류·도기류로 세분되며, 백자류는 일괄로 분리되어 출토된다. 청동류는 시저와 합으로 손가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기류는 와정(瓦鼎)과 와甗(瓦甗) 등이 보강토에서 출토되었다. 장신구는 구슬로 이루어진 경식과 귀걸이 그리고 가락지 등이 해당 신체부위에서 확인되고, 동곳과 은장도, 청동거울 등이 출토되었다. 문방구는 소형 벼루와 연적 등이 있으며, 기타 청동방울·철제가위·손잡이·인장·청동동물상 등과 토제 묘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인골은 670여 개체가 잔존하며, 성별·나이·신장·건강상태·방사선·기생충·골조직 등의 분석기준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인골자료는 단일유적에서 높은 밀도로 많은 개체가 확보됨에 따라 이 지역에 묻힌 피장자의 생활과 건강을 비롯한 생물학적 속성변천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결과물은 향후 이루어질 시대별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지역은 한양의 북서쪽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는 까닭에 도성과의 접근성, 북한산과 무악재, 박석고개 등에 의한 격리성을 지닌 지역으로 매장지로서 적합한 입지여건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도성 부근 10리 내에 매장을 금지하는 경국대전 규정에 의거하여 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무덤이 밀집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의 높은 밀도로 분포하는 이 유적이 조사됨에 따라 조선시대 분묘 축조의 형태와 규범을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와 함께 인골자료 분석을 통해 당시 도성내의 환경과 사회상을 해결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적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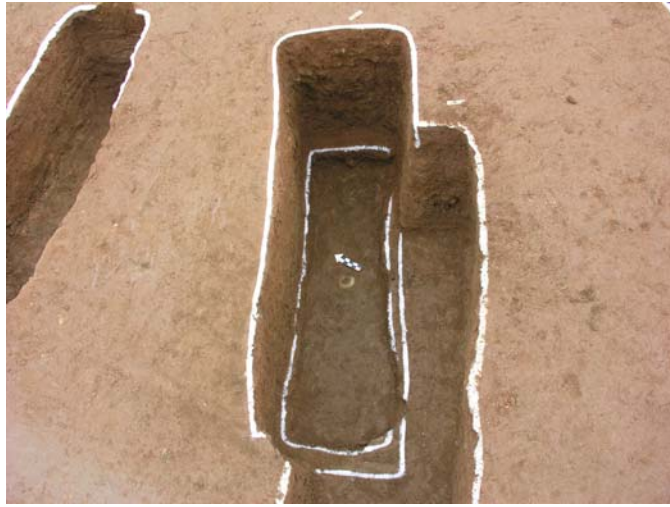
유적전경-세부



출토명기(도기류)



출토명기(자기류)



33호 토광묘



33호 요갱유물출토상태



석실묘 조사 후 전경